

나의 바람

밝아오는 2017년

나의 소망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안정과 평화다.

또한 크리스천의 적극적인 정치개입 속에

주도적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노혜미야, 다윗 같은 영적 지도자가 등장하기를 기도한다.

작금의 사태는 이 나라의 성장통이며

홍수 속에 찍은 것을 끌어내며 대청소하는 과정이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다.

여러분!

해가 뜨기 직전이 제일 춥고

임신 중 어린아이 출산 때가 가장 시끄럽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나!

두려워할 것 없다.

우리 모두 기도하자.

머잖아 여명이 밝아오는 것을 누가 막으랴! 막을 자 없다.

어린아이의 새 생명 소리는 평화의 종소리로 들릴 것이다.

또한 '삼천리 금수강산 통일의 함성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사 우리나라 통일됐네' 노래가

만방에 울려 퍼지길 기도하며 기대하노라!

2016년 12월 22일

朋友 李礎石



봉우컬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2017년, 새로운 해가 되었습니다.

올해 모두 건강하시고, 소원하는 일들 다 성취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께 “내가 너를 믿어.” 라는 소리를 들어봅시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인정받으면 승진은 따 놓은 당상이듯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만사형통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까요?

성경속의 인물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다섯 달란트 가진 자와 두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인은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습니다. 인정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최대로 활용하여 이익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가 있을 겁니다. 그것으로 충성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됩니다.

둘째, 헛된 것을 좇지 않고 진리 가운데 행하면 됩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딤후2:15).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밖에 없습니다. 그 진리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인정받습니다.

셋째, 시험을 이길 때 인정을 받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약1:12). 욕이 시험을 이겨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처럼 시험 받을 때에 감사하며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거짓이 없는 나다니엘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요1:47), 누가복음 7장에 백부장이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고 인정을 받았으며, 전 재산인 두렵돈을 드린 과부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눅21:3). 언제나 진실했던 요셉, 죄를 짓고 바로 회개한 다윗 역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겠지만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됩시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찌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고후10:17~18). 할렐루야!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11:12)

올라가지 못할 나무, 쳐다보라

다사다난했던 2016년을 보내고 이제 2017년, 새로운 해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로운 해가 왔다고 해서 새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새 삶이 시작되고,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새로운 인생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올라가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않았다면, 올해는 올라가지 못할 나무, 쳐다보며 삽시다. 그러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침노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도전'하고, '모험'해야 합니다. 두렵습니까?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재에 만족하고 사는 수밖에요. 매일 그 밤에 그 반찬으로 사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습니다.

사실 침노는 불법입니다. 남의 집에 침노하면 불법으로 경찰에 연행됩니다. 남의 땅에 침노해서 말뚝 박으면 바로 쇠고랑 잡니다. 그런데 침노가 통하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어린 것들이 엄마, 아빠 자는 방에 덜컥 문 열고 들어와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할 때 여러분은 어떡하십니까? 또 저 혼자는 올라가지 못하는 곳에 올라가겠다고 때를 쓰면 어떡하십니까? "알았다 알았어. 그만 때 부러라." 하고 원하는 것을 주고, 또 올라가고 싶어 하는 곳에 올려주곤 하여 떨어질까 졸졸 따라다니면서 지켜주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침노하면, 도전하면 애 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신지라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원하는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침노가 통한다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라'는 말씀이 이를 용납하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를 믿어주는 것만큼 내가 성장 발전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원하는 것을 손에 쥐지 못한 것은 침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주제에 뭘 해?', '내 팔자에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생각이 여러분 스스로를 앓은뱅이로 만든 것입니다. 왜 부딪쳐보지 않습니까? 왜 도전해보지 않습니까? '니 해봤노?'가 18번이었던 고(故) 정주영 회장의 말은 명언 중의 명언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자들, 스스로가 안 된다고 결론을 팽팡팽 내렸으니 당연히 안 되지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했어?' 하며 하나님을 탓합니다.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지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는 자를 도와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온 네 친구 이야기입니다. 하도 많이 해서 귀에 딱지가 앉았을 겁니다. 중풍병

에 걸린 친구를 고치기 위해 네 명의 친구가 연합하여 예수님 곁에 가려하였으나 사람이 너무 많아 근처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네 명의 친구는 '방법이 없다'고 하지 않고 지붕을 뚫어 병든 친구를 매달아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 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운전자가 자동차에서 내린 것과 같습니다. 운전자가 내린 차가 움직일 리가 없지요. 그러나 어떻게든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면 방법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아리수라도 파

이프라인이 녹슬었으면 녹슨 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소경바

디 때 오를 보십시오. 그의 생각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든

눈을 뜨고야 말리라 하더니 도전하지 않습니까? 소경이 무슨 도전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고래고래 예수님을 부른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도전하다보면 옆 사람에게 미쳤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무모하다고 자제하라고도 할 겁니다. 바디매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때 멈추면 안 됩니다. 바디매오는 더 크게 소리를 질러 예수님의 귀에 들리게 했고,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방팔방이 감지되지 않았지만 무조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 또 바디매오 이야기네' 하지 말고 그의 생각과 도전의식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지요. 그의 키는 평균 이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예수님을 뵈고야 말리라'는 그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자, '안 보이

니까 집에 가자' 한 것이 아니라 '뽕나무에라도 올라가자' 한 것입니다. 위대한 도전이요, 결단이지요.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도 할까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귀신 들린 딸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하는 곳으로 찾아가 간구했습니다. 침노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막7:27)며 무시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일부러 개 취급한 것이지만, 당시는 이방인을 업신여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

는 "주여 울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막7:28)라며 포기하지

않더니 결국 그 꿈을 이뤄 냅니다. 사람들이

이 여기서 걸립니다. 알랑한 자존심 때문입니다. "나더러 개라고? 기가 막혀서." 이런 자존심을 내세우면 종치는 겁니다. 목적을 이루는데 무슨 말라빠진 자존심입니까?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치를 당하시면서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말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친구에게 떡을 구하는 자나 누가복음 18장에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의 결말을 보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호박씨를 심으면 호박이 나고, 도토리씨를 심으면 참나무가 나는 겁니다. 씨를 보면 도저히 그 안에서 호박이 열리고 참나무가 날 것 같지 않지만,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호박을 거두고 참나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박씨를 그대로 두면 썩을 뿐이고, 도토리를 그냥 두면 평생 도토리일 뿐입니다.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단해야 하고, 도전하고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분의 자녀된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안 해서 못하는 것이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9:23)고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고, 또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요14:12)며 자신감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현실에 안주하고 사는 것은, 또한 못하겠다고 주저앉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위대한 결단이 위대한 사람을 만든다

"늡어서 못해!" 하십니까? 저는 지금부터 30대 생각과 도전의식을 갖고 살려합니다. 생물학적 나이로야 70이 다 되어가지만 그것은 숫자에 불과하니 생각을 젊게 갖고 다시 도전하는 삶을 살려합니다. 생각이 결과이기 때문입니다(렐6:19).

꿈은 분수리는 잣대를 가져다 대는 순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면 분수나 팔자의 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을 바꾸세요. 썩은 생각은 썩은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썩은 나무에 물을 줘봐야 더 썩을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2017년을 기점으로 아름다운 미래가 꽃다발을 안고 달려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총회장 이초석 목사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폴 고갱의 그림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에는 인간의 탄생, 삶, 그리고 죽음의 세 단계를 한 화면에 표현함으로써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본 경험이 있을 것인데, 그 해답은 찾으셨나요?

과학자들은 이것의 해답을 찾고자 우주의 탄생, 물질의 기원, 생명의 기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을 보면, 우주가 탄생하기 전인 태초에는 질서와 같은 어두움만이 있고 물질이 전혀 없는 에너지 형태만 존재합니다. 138억 년 전에 이 에너지 형태가 대폭발을 하는 빅뱅이 발생하면서 우주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때 물질의 기원인 쿼크(quark), 렙톤(lepton), 그리고 힘 전달자(force carrier) 등이 탄생하고 이들이 서로 결합하여 현재의 물질세계를 형성합니다. 빅뱅이 일어나고 90억년 후에 태양계와 지구가 생기고 초기의 지구는 물로 덮여 있습니다. 물의 증발로 인해 지구에는 땅이 생기고 식물이 먼저 탄생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공기가 형성되고 식물의 광합성 작용이 활성화 됩니다. 그 이후 각종 동물들이 탄생되고 포유류가 맨 끝에 탄생합니다. 사람은 지구상에서 가장 마지막에 탄생한 생명체입니다. 또한 우주 전체의 23%는 빛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전혀 보이지 않는 공간이며,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4차원(3차원의 공간과 1차원의 시

간)의 세계가 아닌 10차원 이상의 공간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과학자들이 밝혀낸 기원의 역사를 창세기와 대비해 보면 창조의 순서와 대상이 일치합니다. 빅뱅 이전의 질서와 에너지의 존재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창1:2)으로, 우주의 빅뱅은 “빛이 있었고”(창1:3)로, 초기 상태의 지구를 뒤덮은 물은 “물과 물로 나뉘라”(창1:6)로, 땅의 출현은 “물이 드러나라”(창1:9)로 대비됩니다. 식물이 지구상에 먼저 나오는 것은 “각종 풀과 채소와 나무를 내니”(창1:12)로, 식물의 광합성을 위한 창조는 “땅을 비추게 하시며”(창1:17)로, 각종 동물들의 탄생은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창1:21)로, 포유류의 출현은 “땅의 짐승과 가축을 그 종류대로”(창1:25)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출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창1:27)로 대비되고, 다른 생명체들과 구분되는 영혼이 있는 창조물이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반영됩니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는 10차원의 우주공간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공간이 아닐까요? 과학자들과 우리의 의문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흙으로 만들어 내 영혼을 불어넣어 만들었으니 너희는 나의 자녀이며, 영원히 나와 함께 살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관섭 장로
kwansup1029@gmail.com

:: 성경에세이 ::

지금이 제일 좋아!

여보게!
나는 지금 이 나이가 딱 좋다네. 뭐 머리가 많이 빠져서 속이 다 보이고, 흰 머리 때문에 염색을 하라니니 포마드를 바르라니니 말도 많지만, 그래도 나는 지금 이 나이가 딱 좋네. 육체라는 건 세월이 가면 누구나 쇠해가는 거 아닌가. 이 나이쯤 되니까 세상이 보이네. 사람도 볼 줄 알고, 세상 이치도 알겠고, 더욱이 산전수전 겪은 터라 많은 경험이 재산이 되었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칠 수도 있고, 덕담도 해주고, ‘이놈들!’ 하면서 충고도 해줄 수 있고, 경험담도 얘기해줄 수 있지.

또한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가 생겼네. 젊을 때야 더 높이 올라가야 하고, 더 많은 것을 이뤄야 한다는 부담감이 알게 모르게 작용하지 않은가. 물론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여서 그 하명에 절대적으로 충성해야했기에 그랬지만, 아무튼 일분일초, 촌각을 다투는 세월을 보냈지. 그러나 지금은 아니네. 오히려 비울 줄 알게 되었고, 내려놓을 줄도 알게 되었네. 소유욕은 애당초 없었지만, 힘에 겨운 일은 억지로 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생긴 거지.

허세도 없어졌지. 폼 잡으려는 것도 사라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게 되었네. 품생품사 시절이 지난 게지. 그래서 편하네.

여보게!
다시 한 해가 시작되었네. 한 살을 또 먹었지. 꽤나 많이 먹었네. 그러나 나이 들을 슬퍼하지 말게. 나이가 들어 얻어지는 것들도 많으니까. 젊어서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모르는 것들이 나이 들면 보이고 들리고 알게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학문은 없으시나 항상 이치에 맞는 말들을 하시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다는 것을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알게 되었지.

젊음이 좋지. 부럽기도 하지.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사고 싶은 게 젊음이지.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은가. 가능성이 없는 것에 목을 땔 필요는 없네. 지금 내 나이가 가장 좋은 때라 여기고 재밌게, 즐겁게, 알차게 보내면 되는 거라네.

한 살 더 먹은 걸 축하하네. 그만큼 마음도 넓어지고 시야도 넓어질 거야. 힘을 내라고!

朋友

새해의 각오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다. 신년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작년을 돌이켜본다. 작년 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이루었는지 생각해본다. 계획했었던 일들 중 일부는 이루었고, 어떤 것은 그렇지 못했다. 썩 잘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신앙은 어떠한가? 기도 응답을 받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고, 간청해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도, 기도가 나오지 않아 힘들 때도 있었다.

한편,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 빚을 탕감해주듯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주셨다. 그런데도 타인이 100 데나리온 만큼의 피해를 주면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었다. 의를 향한 내 마음은 아직 연약하고 불완전하다. 그러나 그렇

기 때문에 완전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더욱 사모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이다(신31:6). 기쁘거나 슬플 때, 어두운 동굴에 있거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통과할 때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신다.

2017년에도 우리들은 새로운 목표를 세우며 의지를 다질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승리를 맛보거나 고배를 마실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승리한다면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패배하여도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여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자.

2017년, 우리 모두 파이팅하자!

김성일
cre8tor@naver.com



:: 사랑 & 행복 ::

성공을 이루는 힘

새해를 맞이하며 가장 즐거운 일은 새로운 목표를 계획하고 상상하는 일일 겁니다. 도전은 듣기만 해도 마음이 설레고, 삶의 원동력이 되지만, 모든 도전이 성취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 너무 많아 작심삼일도 1년 내내 반복하면 성공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도전은 초심을 잃기 쉽지만, 반면 초심을 잃지 않고 집념과 끈기를 더한다면 진정한 성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미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는 하버드보다 입학과정의 까다로움으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수능 점수, 각종 체력장, 심지어 국회의원 추천서까지가 필수이며, 최소 2년의 준비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힘들게 입학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자 5명 중 1명은 중퇴하고, 그 시기가 7주간의 고강도 군사훈련 때랍니다. 미국의 심리학 박사가 중퇴한 학생들을 연구한 결과, 그들의 포기 여부는 재능, 학업성취도가 아닌 집념과 끈기의 부재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반면 훈련을 통과한 학생들은 끈기를 바탕으로 향후 버거운 과제들이 닥쳤을 때마다 역량 이상을 발휘하여 학교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에게 집념, 끈기와 같은 인내를 함양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신앙의 기본자질입니다. 인내가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도, 꿈을 이룰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압박강 가에서 천사와 겨루며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축복을 빈 끈기의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겨뤘던 이긴 사람이란 뜻의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붙여 주시며,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도전의 씨앗이 마음에 싹트었다면 반드시 지속할 수 있는 힘, 끈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갖춰진 인성도 아닌, 함양해야 할 삶의 자세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어진 일부터 집념을 갖고 완수해 나간다면, 내면에 숨겨둔 바랄 수 없는 꿈들이 올 한 해 충분히 바랄 수 있던 꿈으로 변화되어 있지 않을까요.

김고은
khjc77@hanmail.net

먼저 내 이웃에게 인정받자

2017년 새해가 밝았다. 예수중심교단 올해의 새 표어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자’이다. 몇 번이나 이 말을 곱씹어 보았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문득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얼마 전, 홍콩 여행을 다녀왔다. 2박 3일 동안 우리를 안내해준 가이드는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였다. 베테랑이셨지만, 자신에게 이익이 없으면 친절도 베풀지 않는 분이셨다. 우리 일행은 선택 관광을 일절하지 않고 지정 기념품점에서 물건도 사지 않았다. 시간이 갈수록 가이드의 얼굴은 굳어 갔고, 급기야 자유일정 후에 공항으로 바로 간다하니, 여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쓰고 가라고 하였다. 가이드는 각서를 받은 후 서둘러 다른 일행을 데리고 떠났다. 가이드가 떠나자마자 여행일정에 포함된 가이드 팁 80불을 미처 주지 못했던 것이 떠올랐다. 2박 3일간 쌀쌀땀던 가이드의 얼굴이 떠올라

잠깐 망설였지만 가이드에게 전화를 걸었다. 30여 분 뒤에 허겁지겁 달려온 가이드는 눈물까지 글썽거리며 내 손을 덥석 잡았다. 고맙다는 말을 쉴 새 없이 내뱉으며 나를 끌어안는 가이드를 보니 마음 한 곳이 너무 쓰렸다.

잠깐이었지만 가이드가 알미워서 모른 척 넘어가려고 했던 순간이 떠올라 부끄러웠고, 그 순간에 주님을 떠올리며 억지로 전화를 걸었던 내가 너무나 자랑스러웠다. 공항에서 다시 만난 일행들은 입을 모아 우리를 칭찬하였다. 선한 끝은 있다고, 우리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은 살 만한 것이라고.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이드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뭇뻬할 수 있는지를 생각했었다. ‘그 일을 한 뒤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지 생각해서 그 세 개가 다 충족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조언해주셨던 엄마의 말을 떠올렸다. 그래서 가이드에

게 전화를 하였고, 돌아오는 귀국길에 생 각지도 않은 칭찬을 들었고, 일련의 과정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다보면 내 이웃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이지만 그와 동시에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며 인연을 만들어간다. 평강 가운데 거하기 힘든 거친 세상살이 이기에 늘 의롭게 살 수는 없다. 하지만 때 순간 하나님 앞에 뻬뻬한지 나를 되돌아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가슴에 안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즉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몸부림이 내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네 원수를 사랑하라”(마5:39~44)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2017년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전훈지

ppjee@hanmail.net

목사님께서 방긱이 웃으시며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생사화복이 우리 앞에 있는데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교단소식 ::

평화통일을 꼭 해야 하는 이유



성탄절 행사를 마치고 (2016. 12. 25. KBS88체육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이는 인천에서 성탄절 오전예배를 마치고 오신 총회장 목사님의 일성이었다. 성탄절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개 새끼는 개고, 소 새끼는 소요, 사람의 자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같은 신적인 권능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권능은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이며(히11:6), 오직 의인은 믿음

으로 사는 것입니다(롬1:17). 그러니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라는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오늘 이 성탄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통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회복되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행사가 이어졌다. 유아유치부 아이들의 율동에 이어 북한 지하교회의 실상이 연극으로 그려졌다. 소리 내어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는 것이 소원인 북한 성도들, 북한 당국의 살벌한 감시를 피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 성도들, 행여 발각되면 3대를 멸하고, 온갖 심문과 고초를 겪어야 하는 그들을 연극을 통해 보면서 생각이 깊었다. 목사님 말씀대로 ‘저런 고문을 받으면서 나는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생각했고, 당연한 듯 우리는 신앙의 자유

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임을 깨달았다.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복이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약속이나 한 듯 인천교회도 서울교회와 동일하게 북한 지하교회의 실상에 대한 연극을 했다. 이를 통해 우리 교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엿볼 수 있었다. ‘어서 더욱 기도하여 평화통일을 앞당겨라. 그래서 저 죽어가는 북한 성도들, 북한 주민을 구원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는 듯하다.

주님의 뜻을 알기에 우리는 신년 1월 3일, 다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신년축복기도성회를 연다. 우리, 그날은 만사를 제쳐두고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모여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하루속히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자. 지금도 ‘예수’를 부르며 죽어가는 북한의 성도들을 살려보자. 굶주림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을 구해내자. 이것이 우리 교단의 사명이다.

2017년 1월 3일 저녁 8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모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또한 평화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

신묘수

jesus5526@gmail.com

기다림의 미학!

첫 술에 배부르길 원하죠? 하지만 아쉽게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의 사자를 보십시오. 먹잇감이 시야에 들어와도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만의 하나 경거망동하게 공격을 단행했다가는 자칫 먹잇감을 놓칠 수도 있음을 사자는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자는 기다립니다. 확실하게 자신의 공격이 통할 수 있는 바운더리에 먹잇감이 들어왔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몸을 날려 사냥에 성공하는데, 배고픔에 지친 맹수가 먹잇감을 눈앞에 두고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기다림의 미학을 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미학이란 기다리는 시간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모든 것에는 고요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25년, 야곱의 20년, 요셉의 13년이 말해주듯 인간은 성급한 열정에 휘둘리지 않고 기다릴 때 인내심속에서 고매한 심성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이 아닌 시간으로 길들이고 있을 뿐이다.”(탈타사르 그라시안)

그런데도 현대인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빨리빨리 문화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정이 급하고 매우 빠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성스럽고 소중한 인간의 탄생부터, 곡식과 과일이 무르익고 수확하는 것, 길고 긴 기다림 끝에 계절이 바뀌고 맛을 더하고 멋을 더하는 것 모두 기다림의 결과물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기다림은 나를 돌아보게 하고 상대에 대한 시야를 넓혀줍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조금만 기다려주면 증오의 마음도, 섭섭한 감정도, 아픈 상처도, 무너진 경제력도, 결국 다 해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기다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김정옥 전도사

jcc0115@naver.com

신년 평화통일 기도성회

2017년 1월 3일(화) 저녁 8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문의 02-533-9191